

◆ Library and New Community Movement

새 마을 운동과 圖書館

李 鴻 球
(서울시립 종로 도서관장)

1. 序 言
2. 農村 現況의 背景
3. 精神啓發이 要請되는 要因
4. 讀書施設 普及의 必要性
5. 새마을 運動에 參與하여야 하는 圖書館의 役割
6. 結 言

1. 序 言

지금 政府는 새마을 事業을 重要한 當面 國家政策으로 定立하고 全國 一齊히 이 運動을 展開하고 있는 이때에 도협월보 編輯者가 “새마을 運動과 圖書館”이라는 主題를 내 놓게된 理由는 可히 짐작할 수 있으니 즉 圖書館도 새마을 運動의 一翼을 擔當하여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意見으로 解釋된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公共圖書館은 그 地域社會의 文化센터라고 일컬어 오기 때문이라고 본다. 地域社會의 文化센터라고 하면 宜當 地域社會 開發의 中樞의 役割을 擔當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 現況은 貧弱하다고 말하기 以前에 圖書館이 있다고 할수 없을 程度로 不在狀況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役割을 云謂한다는 것 조차가 意味 있을는지 의문이 간다.

全國 185個 市 郡 區中에서 아직도 100餘個處가 圖書館 施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이미 施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豫算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 많이 넘는다.

하나의 國家가 文化政策을 度外視하고 繁榮할 수 없듯이 地域社會開發도 文化面에서의 適切한 施策이 없이는 成功할 수 없다. 새마을 運動이 이점에 留意하지 아니하는 限 所期의 目的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여 두면서 이 運動이 展開되어야하는 歷史的 背景을 一瞥하고 圖書館이 이 運動에 參與할 수 있는 具體的인 方案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農村 現況의 背景

새마을 運動은 都市와 農村할 것 없이 全國的으로 進行되고 있으나 그 重要目標은 都市보다도 農村에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農民은 해마다 生産底下에 따르는 生計自立難으로 말미암아 農耕에 依한 生産意慾을 喪失하고 都市로 漠然히 集中하는 慢性的 傾向을 들어내고 있으며 그 結果는 農業國이면서도 年間 300萬屯 以上の 外米를 導入하여야되고 都市는 都市대로 人口膨脹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農村의 이와같은 狀態는 昨今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歷史的 背景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日帝治下의 36年間은 말할 것도 없고 그 以前에도 舊韓末에 地方長官이 赴任하게 되면 農民을 保護하는 것이 아니라 討索질을 일삼는 習性이 있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全奉準의 東學亂도 이 收奪에 對한 抗拒였던 것이다. 地方 守令方伯은 이것뿐만 아니라 生殺與奪權까지 휘둘러 良民을 괴롭혔기 때문에 農民들은 언제나 戰戰兢兢하여 自己生業에 安心하고 從事할 수 없었으며 生業에 對한 意慾은 姑捨하고 胡口之策도 어려운 者가 續出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民은 官을 面從은 하면서도 內心으로는 不信하는 風潮가 일게 되었고 官에 오르는 사람은 致富와 榮達을 一時에 約束받는 자리를 놓고 아귀다툼을 하였다. 그 사람들은 治者로서의 能力과 度量을 習得하기 以前에 收奪者로서의 威勢와 詐術에 더 能하였다.

舊韓末 地方官吏의 收奪方法이 無知하였다면 日帝 36年間의 收奪方法은 組織의이고도 惡毒하였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期間동안에 우리 民族이 그리운 山河를 버리고 外地로 流浪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가를 헤아려 보아도 可히 推則할 수 있다. 그리하여 離農率이 많아지고 收奪對象이 줄어들자 日帝가 自力更生이라는 口號를 내 세웠든 것은 우리가 아직도 記憶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舊韓末이나 日帝 36年間과 같이 農民이 收奪

의 對象이되었든 時期에 있어서 特히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는 이들 農民을 無知속에다 묻혀두었다는 事實이다. 舊韓末에 있어서의 學問이라는 것은 儒學뿐이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治者階級이 權座에 오를수 있는 機會를 獲得하는 手段으로 밖에는 利用되지 않았고 國民民福을 爲한 參與 知識으로 活用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日帝治下에서는 文盲이 全人口의 7割이라고 하였으니 그들의 所謂 文化政治라는 假面을 벗 볼수 있다.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農民大衆은 無知와 疾病과 饑飢에 해매었던 것이다.

8·15解放後 建國과 同時에 土地는 農民에게 주어야 한다는 原則아래 土地改革을 實施하였지만 農民이 自力으로 營農하기에는 위와 같은 歷史的 背景으로 말미아마 너무나 힘에 겨웠던 것이다. 거기에서 6·25라는 未曾有의 國難으로 國土는 썩밭이 되어버렸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農村開發 事業을 爲하여 政府가 國力을 投入하게 된 것은 實로 多幸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祈願하여 마지 않지만 眞 原因에 비추어 볼 때 一朝一夕에 達成되리라고는 期待하기 어렵지만 長期的 計劃과 國民 各自의 꾸준한 努力이 要望되는 것도 勿論이다. 特히 官으로서 留意하여야 할 點은 뿌리깊게 박힌 不信風潮를 拂拭할 수 있도록 精誠 어린 指導가 必要하다고 본다.

慶北 어느郡에서 社會病弊로 調査하였든바 300명가 지로 추려내었다고 한다. 이 많은 陋習이 빚어지는 原因을 따져 올라가 보면 根本的인 要因은 두가지 面으로 要約할수 있다고 보는 바이니 卽 그 첫째는 物質的 缺乏이요 그 둘째는 精神的 貧困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새마을 建設에 있어서 이 두 貧困의 驅逐은 그 目標가 되어야하며 그 어느 하나도 疎忽히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主張하는 바이다.

3. 精神啓發이 要請되는 要因

近代化를 지향하는 現代國家가 안으로 無知한 國民大衆을 많이 안고 있다고 하면 그 以上 難點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日常生業에 從事하고 있는 國民하나 하나의 知識과 能力의 總和가 그 國力을 左右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精神姿勢, 健全한 思想, 바른 判斷도 知的 能力의 缺乏에서는 期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國家를 莫論하고 國民教育에 힘쓰고 있는 것은 國民 個個人의 利益을 爲한 것이기도 하지만 他面으로는 國家全體의 利益을 圖謀한다는 立場에서 實施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우리나라 國民은 向學熱이 높아서 學校 教育에는 非常한 關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學校教育이

널리 普及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反面 教育은 이에서 끝나는 것으로 誤認하는 傾向도 많다. 그리하여 學校 教育은 스스로 自己教育을 할 수 있는 方法을 習得한 것에 不過하다는 것을 忘却하고 그 知識 그대로를 가지고 一生동안 썩 먹는 過誤를 犯하는 일이 흔히들 많다.

人間은 物質的 新陳代謝와 더불어 精神的 新陳代謝도 一生을 通하여 繼續하는 것이며 어떠한 代謝를 하느냐 하는 質的 內容이 또한 問題되지 않을수 없다. 日常生活에서 周邊의 消息이라든가 또는 고작해야 新聞이나 라디오에서 얻는 報導로써 精神代謝를 滿足시키는 程度라면 일에 臨하여 事理에 맞도록 處理할 수 있는 判斷이나 能力을 가추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能力을 우리에게 賦與하는 것은 赤是 圖書를 通한 讀書다. 圖書도 圖書나름이어서 良書와 惡書를 區別하지 않으면 아니되지만 良書속에 담겨져 있는 知識은 一般的으로 그 生産過程에서 다듬어지고 濾過되어 널리 通用될 수 있고 時間的으로 持續할 수 있는 眞理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精神的 糧食을 供給함으로써 올바른 理解와 더불어 産業에 관한 知識과 技術을 獲得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卽 精神啓發이라고 하여도 口號만 가지고 無에서 有를 짜 내는 것이 아니라 밀친을 주어야 生産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解放後에 各級學校가 國民의 向學熱을 타고 兩後竹筍처럼 增設되었고 其中에도 國民學校는 널리 普及된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大多數는 學校를 일단 나오면 곧 한철 읽을생각을 아니하고 學校看板만 내 세우는 弊習을 가지고 있다. 또 設령 工夫를 한다고 하여도 어떤 資格을 獲得할 때까지만 繼續하고 그 資格을 얻고난 다음에는 그만담을 쌓고 만다. 이것은 舊時代의 선비들이 科擧에 壯元及第하기 爲하여는 갖은 努力을 다하였지만 及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리 다듬에만 血眼이 되었든 낡은 傳統이 不知 不識間에 遺傳된 遺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옛날 선비들(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中에서도 世도를 잡았던 사람들 처럼 固陋하고 暗愚하였든 사람들도 없었던 것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眞 一生을 놓고 따져 보아도 學校 다닐때 보다는 社會에 나와서의 人生이 더 길며 이 期間中에 精神的 糧食을 부지런히 攝取하여 精神代謝를 行하지 아니한다면 낡은 人間 다시 말해서 物質的으로는 살아 있어도 精神的으로는 生命을 잃어버린 人間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 社會도 知識의 流通이 없이는 沈滯된 社會로 轉落하고 마는 것이다.

4. 讀書施設 普及의 必要性

讀書은 勸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施設選 境造成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先進諸國에서는 圖書館施設이 널리 普及되어 있으며 2次戰以後에 獨立된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人口 200餘萬에 公共圖書館은 600個所나 가지고 있다. 그 나라가 砂漠을 沃土化하고 自國보다 몇 배나 더되는 아랍國家들을 相對하여 이겨 나가는 그 原動力의 出處를 이 하나의 事實만으로도 可히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國家에서 地方組織을 構成함에 있어서 맨 먼저 必要한 것은 行政機構로서의 地方行政官署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必要한 것은 治安을 擔當하는 警察官署일 것이며 그리고 文化施設로서는 學校를 設署할 것이지만 圖書館도 社會組織속에 들어야 하는 必要不可缺한 機構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라는 發展할 素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行政擔當者들은 圖書館에 對한 認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其實은 바른 認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다만, 圖書館을 하나의 社會的 裝飾物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어떤 個人家庭에서 으리 으리한 應接室을 꾸며 놓고 書畫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美術品과 골동품을 陳列하고 곁하여 書架에 全集類의 圖書까지 排列하여 놓았다고 하자. 이 중에서 美術品이나 골동품은 視覺的으로 鑑賞만 하는 對象이기 때문에 또 흔하지 않은 貴重品이기 때문에 裝飾의 役割을 擔當하여도 무방하지만 圖書가 여기에 한몫 끼어 貴重品의 구실을 맡는다면 이것은 目的이 顛倒된 可笑로운 일일 아닐 수 없다. 우리 社會에서 所謂 一流家庭이라고 불리어지는 곳에는 이와 같은 裝飾品·圖書가 많이 있다. 그 主人公들은 圖書館을 社會的 裝飾品으로 誤認할 것이다.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밥이나 반찬이 裝飾品이 아니듯이 圖書는 裝飾品이 아니며 따라서 圖書館도 社會的 裝飾品이 아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人間은 物質代謝와 아울러 精神代謝를 살아 있는한 繼續하는 것이므로 冊이 精神代謝의 主要한 糧食 구실을 못한다면 無意味한 것이다.

이 物質的 精神的 代謝는 個人뿐만 아니라 社會도 行하고 있다. 經濟流通을 社會的 物質代謝라고 본다면 社會的 精神代謝는 知識의 流通을 뜻한다. 勿論 그중에는 메스컴이 傳해 주는 情報도 包含되지만 메스컴에만 依存하는 精神代謝는 浮動的이며 健全성을 缺하기 쉽다. 그러므로 圖書를 통한 知識의 流通이야말로 健全社會建設의 要諦인 것이다.

圖書館은 知識이 社會的으로 流通하는 過程에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媒介機關인 것이며 社會가 發展하느

나 아니면 沈滯해 가느냐하는 것은 그 組織속에 圖書館이라는 知識의 流通機構를 設置하고 있느냐에 따라 左右된다.

5. 새마을 運動에 參與하여야 하는 圖書館의 役割

地域社會 組織속에 圖書館 施設이 必要하다고 할지라도 마을마다 設置할수는 없을 것이며 또 반드시 그럴 必要도 없다고 본다. 그것은 財政上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公共圖書館의 機能面에서 볼때에도 좋은 方法은 못되는 것이다.

아무리 마을마다 設置한다하여도 마을 사람들이 마을 圖書館에 와서 冊을 읽는다는 것은 事實上 어려운 일이다. 그 사람들은 낮에 밭에 나가 일을 하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기가야 農村사람들이 저녁먹고 마을방에 모여가서 무슨 내기나 하지 않으면 도박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마을圖書館에 모아 놓고 冊을 매겨도 서로 쳐다보고 잡담이나 하겠지 讀書하는 雰圍氣를 造成하지는 못할 것이다.

讀書라는 것은 職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틈틈이 읽어드는 것이므로 어떤 指定場所에 가서 읽는 것 보다는 恒常 冊이 自己의 生活周邊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各其 個人에게 貸出하여 주는 것이 가장 効果的이다.

그렇기 때문에 圖書館事業이 發達된 나라에서는 公共圖書館이 館內奉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館外奉仕에 더 置重하고 있다. 館外奉仕 活動은 여러가지 類型이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効率的인 方法은 自動車 移動文庫로서 一時에 많은 圖書를 싣고 遠距離까지 갈수 있으므로 여러 마을을 巡廻하는 一定한 日字를 定하고 定期的으로 運行하면 꼭 같은 冊을 여러사람에게 利用시키므로 冊種類를 多樣하게 選擇하여도 圖書館이 여러곳에 있는 것 보다는 圖書費가 節約되며 또 圖書館을 여러 곳에 設置하는 것을 移動車가 代行하므로 管理費가 節減되는 利點이 있다.

우리나라 行政區域은 地域이 넓으므로 將來에는 面單位的 圖書館이 設置되는 것이 理想的이겠지만 지금 當場에는 郡單位 圖書館도 서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니 우선 郡單位 圖書館을 먼저 設置하고 이들 圖書館에다 自動車 移動文庫를 두어 各地를 巡廻하는 機動力을 發揮케 하여 이미 設置된 마을文庫와 連絡하는 것이 가장 適切한 方法이다. 小規模의 讀書施設인 同時에 讀書 클럽인 마을文庫는 우리나라 特殊한 制度로서 多年間의 勞苦에 依하여 全國 自然部落에 2萬個 以上을 設置하는 큰 成果를 거두었으나 文庫自體가 自立할 能力을 갖추기 어려워 圖書普及을 他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 大部分이다. 自體能力으로 圖書를 收入하

지 못하므로 始初 設置할때의 圖書만이 남아있게 되고 新刊은 求景을 못하게되니 知識의 新陳代謝는 이루어 질수 없다. 勿論 마을文庫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그中에는 棼문을 모아 自體에서 圖書를 購入하는 곳도 있으나 制約된 經濟의 事情을 넘지는 못하므로 充分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들 마을文庫에 對한 圖書普及을 郡立圖書館이 맡아서 定期的으로 巡廻하여야 한다. 郡立圖書館은 巡廻하는데 必要한 圖書를 量으로 充分하게 種類로 多樣하게 具備하여야 제대로 活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圖書館들이 所藏하고 있는 藏書量은 너무나 貧困하며 더우기 地方圖書館들에 이르러서는 그 藏書가 본 보기 구실밖에 못하고 있으니 그 補充이 없는 機能活動을 제대로 못한다.

圖書館의 藏書構成은 出版界와 不可分の 關係에 놓여 있으며 圖書生産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圖書館에서의 收書는 停止되고 마는 것이다. 이웃 日本만 하더라도 年間 3萬種 以上을 出版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 10分の 1도 못되는 2千種 안밖에서 맴 돌고 있으며 더우기 各 産業分野別로 親切한 指導書라고 할만한 冊들은 얼마되지 아니하고 出版된 것도 內容이 貧弱한 것이 大部分이다. 圖書生産은 圖書館 機能의 밑 바탕이 되며 圖書館 發展은 圖書生産의 要因이 되는 이 相互 連關係를 重視하면서 出版振興을 아울러 조장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을 添言하여 두는 바이다.

郡立圖書館이 部落民들에게 冊을 나누어준다고 하여 讀書가 저절로 척척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讀書指導가 必要하다. 讀書의 効果는 讀書를 통하여 人間의 教養을 얻고 生活과 産業에 必要한 知識을 찾을수 있을 때에 비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單純한 消日꺼리에 쪼쳐서는 別로 價値를 찾을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랑방에 동네사람들이 모여앉아 그 中の 한 사람이 유충열전이나 장화홍련전을 목청 좋게 소리를 내어 읽어내려가면 여러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그 이야기에 흥미를 끄는 식의 讀書는 消日 꺼리에 가까운 리크레이션이다. 이러한 방식을 全的으로 否定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더 價値있고 有益한 讀書를 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讀書는 強要할 수는 없는 것이며 一方的으로 勸獎하는 것은 成功하지 못한다. 아무리 勸獎한다 할지라도 本人 스스로가 興味를 느끼지 아니하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스토리는 좋아하는다.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하여보라 다 귀담아 듣는다. 사랑방에서의 傳朗朗讀會도 이와 같은 心理에서 연유된 것인데 이때에 듣는 것으로 滿

足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어 봄으로써 即 스스로 諷解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맛 보도록 誘導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心理를 가지고 있다. 日常生活에서 自己가 모르는 問題에 부딪혔을 때 그 問題를 解決하려는 努力과 함께 解決할 수 있는 知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農夫가 自己耕作地에 대한 播種 選擇에 관하여 疑問이 생겼다면가 또는 어떤 婦人이 飲食을 調理하는데 있어서 營養價에 관한 問題라면가 調味方法에 對한 疑問이 생겼을 때 그 疑問을 풀려는 努力과 함께 이에 관한 知識을 要求하게 된다. 이때에 圖書가 그들이 要求하는 知識을 供給하여 주게되며 따라서 그 圖書를 다루는 圖書館의 役割이 登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圖書館은 恒常 利用者들을 問題點을 調査把握하고 이를 解決하여 줄수 있도록 細心한 注意로써 圖書資料의 蒐集이나 貸出에 있어서 또 質疑應答에 있어서 受動的 姿勢를 버리고 能動的 態勢를 갖추어 그들의 環境에 뛰어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圖書館은 孤高한 象牙塔의 存在가 아니라 언제나 民衆의 親切한 벗이되어야 그 使命을 다할 수 있다.

6. 結 言

郡立圖書館이 마을文庫와 連結하여 새마을 事業을 支援한다 하더라도 우선 圖書館이 있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文教部는 年間 3千萬원씩 豫算을 策定하여 每年 10個館內外로 增設하고 있어 期待되는 바크나 그 前途는 遼遠하므로 좀더 果敢히 投資하여 全國市 郡區에 一個館만이라도 設置 完了토록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이미 設置된 圖書館中에서도 市立과 郡立 幾個館을 除外하고는 豫算不足으로 大部分이 機能 發揮를 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여기에도 또한 適切한 施策이 있어야 하겠다.

圖書館 設置나 運營에 드는 經費는 따지고 보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事業에 對한 認識 如何에 달려 있을 뿐이다.

앞으로의 圖書館은 座席 爲主의 固定施設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施設로서의 機動力을 兼備시켜야 첫째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수 있고 둘째 豫算이 節減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여 둔다. 이 움직이는 施設로서의 機動力을 갖추는데는 自動車移動文庫가 가장 効率의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當場 圖書館마다 自動車を 購入하기는 어려운 問題이므로 우선 各 市道別로 示範圖書館을 몇군데씩 設定하여 年次的으로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옳겠다.

새마을 事業은 自助自立精神을 確立시키므로써만 成功할 수 있다고 하면 이 自助自立精神은 精神的 空白狀態에서는 挑出될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두는 바이다.